

중국의 냉동공조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조사 및 분석

최준영*, 조금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Survey and Analysis on Non-tariff Barriers against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quipments of China

Jun-Young Choi*, Keumnam Cho**

*Korea Testing Laboratory, Seoul 152-848, Korea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요 약

국내 경제는 지난 40여년 간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GDP기준으로 세계13위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6%의 성장을 하면서 국내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굴뚝산업인 냉동공조산업은 연 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기반으로 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냉동공조분야에서 생산의 약 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날로 치열해 지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 산업 발전의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냉동공조제품은 대부분 구조적으로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사용하며, 냉매의 환경 유해성, 특정 냉매의 인체 유해성 및 발화성 등 안전상 문제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냉동공조제품이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고에너지 소비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어, 세계 각국은 이런 제품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여러 가지 기술적, 법적 장치를 구비하여 자국 내 제조는 물론 수출입, 거래, 설치 및 사용 등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최근 국가별, 지역별 FTA가 활성화 되고, 추진되어가는 시점의 세계 각국의 제도적, 법적 규제 내용을 파악하여 제품개발에 활용하고 국가별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산업 발전과 보호를 도모하며 국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국의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으로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본 제품군들에 관한 세계 주요국의 비관세 수출입 장벽을 연구·조사하여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세계 시장 중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세 수출입 장벽을 중심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